

미국 고용보고서: 7 월 고용감소는 오차범위, 실업률 하락도 노동시장 이탈 탓

2026.08.08 · AI Engineer 조재운 jaeun.jo@daishin.com



7 월 미국 비농업고용은 전월 대비 2 만 3000 명 감소로 발표됐지만, 이 숫자 자체는 통계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 사업체조사의 월간 유의성 기준이 약 ± 12 만 2000 명이므로 2 만 3000 명 감소는 오차 범위 안에 있어 사실상 0 과 구분되지 않는 수준이다. 그보다 무거운 신호는 5 월과 6 월 수치가 합계 10 만 3000 명 하향 조정됐다는 점이다. 그 결과 3 개월 평균 증가폭은 14 만 2000 명 $\rightarrow$ 7 만 7000 명 $\rightarrow$ 2 만명으로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흐름이 확인된다. 수정 방향이 이번 달 약세와 같은 쪽이라 반등으로 상쇄되지 않았다는 점도 부담이다.

실업률은 4.2%에서 4.1%로 내려갔지만, 개선으로 보기 어렵다. 경제활동참가율이 61.5%에서 61.4%로, 고용률이 59.0%에서 58.9%로 함께 낮아졌고 비경제활동인구가 38 만 1000 명 늘었다. 즉 실업자가 일자리를 찾아 취업으로 옮겨간 것이 아니라, 구직을 포기하고 노동시장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분모가 줄어든 결과라는 뜻이다. 같은 달 일시해고자가 15 만 3000 명 늘어 92 만 1000 명에 달했는데도 실업률이 내려간 것은, 참가율 하락이 그 상승 압력을 가려버렸기 때문이다. 다만 일시해고는 되돌림이 빠른 항목이어서 다음 달 반전 가능성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

내용을 더 들여다보면 헤드라인 감소의 가장 큰 요인은 지방정부 교육 부문의 5 만명 감소로, 이는 여름철 계절조정 잔차 성격이 강해 추세로 보기는 어렵다. 이를 제외한 민간부문은 3 만명 증가로 부호가 다시 플러스로 돌아선다. 다만 이 3 만명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의료보건 부문 증가분(2 만 2000 명)에서 나왔고, 나머지 업종에서는 뚜렷한 순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폭넓은 개선으로 보기는 어렵다. 참고로 전체 비농업고용의 최근 12 개월 평균 증가폭도 3 만 4000 명 수준에 그쳐, 올해 들어 고용 증가세 자체가 완만해진 큰 흐름과 맥이 닿아있다. 임금 쪽에서는 시간당 평균임금이 전년 대비 3.2% 상승으로 전월보다 둔화됐고, 산업별 확산지수(증가 업종 비중)도 민간 51.8, 제조업 50.0 으로 낮아져 고용 증가가 소수 업종에 쏠리는 양상이 강해졌다.

이번 지표는 정책 판단에서 미묘한 위치에 있다. 임금 상승세와 노동수요 모멘텀이 동시에 둔화됐다는 점은 추가 금리 인상 논거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다만 근원 개인소비지출물가가 3.3%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이번 지표 하나로 인상 우려가 해소됐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성장 측면에서는 오히려 부담스러운 신호로 볼 수 있는데, 의료보건 부문의 증가세 둔화와 금융업 부문의 장기 누적 감소(고점 대비 12 만 1000 명 감소)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8 월 28 일 예정된 예비 벤치마크 개정치(2 개월 연속 큰 폭 하향 수정 직후 발표된다는 점에서 추가 하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와 다음 달 근로시간 지표(현재 34.3 시간 유지, 34.2 시간 이하로 진입하면 경계 신호로 격상), 그리고 8~9 월 소비자물가 흐름을 함께 확인해야 이번 고용 둔화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와 비교 (같은 분류 최근 분석)	
발행일	핵심 메시지
2026-08-07 (이번)	7 월 미국 비농업고용은 2 만 3 천명 감소했지만 이 수치 자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로 보기 어렵다. 더 무거운 신호는 5 월과 6 월치가 합쳐서 10 만 3 천명이나 하향 조정됐고, 최근 석 달간 월평균 증가폭이 14 만 2 천명에서 7 만 7 천명, 다시 2 만명으로 단계적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같은 달 실업률이 4.2%에서 4.1%로 내려갔지만 이는 노동시장이 좋아졌다
2026-07-02	고용 성장이 직전월 대비 2/3 수준으로 급락(+172k → +57k)한 가운데, 직전 두 달 수정(-74k)까지 감안하면 기저 추세는 명확히 악화; 실업률 4.2%로의 개선은 노동력 이탈(-720k)로 인한 명목 개선이며, 부문별 고용은 의료·전문직만 견조하고 대부분 정체 또는 악화.
2026-06-05	고용 견고(NFP +172k, 실업률 4.3%)로 No-Landing 재확인하되, 임금 상승 지속(3.4% YoY)은 Fed 인플레이 우려를 강화하고, 금융·운송 부문 악화 누적은 기저 성장 둔화 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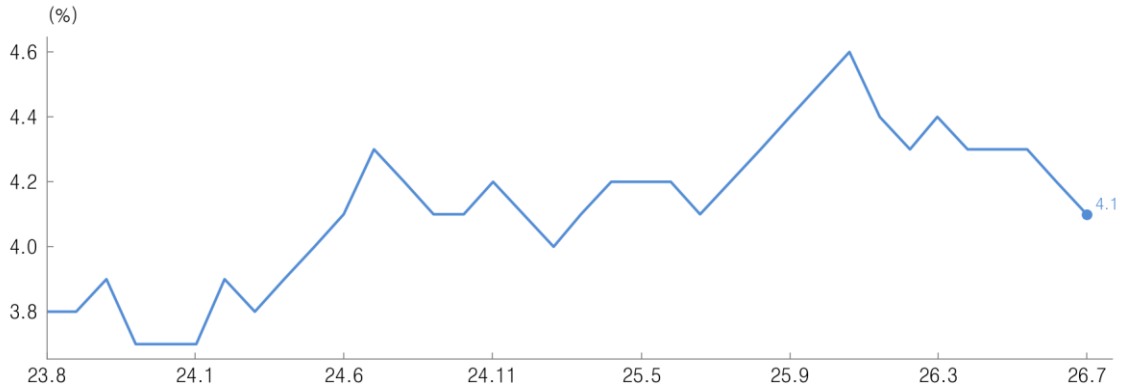
7 월 고용지표 핵심 수치

지표	이번 값	비교·이전	변화	맥락
비농업고용(전월 대비)	-23,000 명	유의성 기준 ± 122,000 명	기준선 이내	사실상 0 과 구분 어려운 수준
5 월·6 월 수정치	5 월 +63,000 명 / 6 월 +20,000 명	수정 전: 5 월 +129,000 명 / 6 월 +57,000 명	합계 -103,000 명 하향	두 달 연속 하향, 반등 요인 없음
실업률	4.1%	6 월 4.2%	-0.1%p	참가율·고용률 동반 하락 속 하락
노동참가율	61.4%	6 월 61.5%	-0.1%p	노동시장 이탈 증가 반영
일시해고자	921,000 명	6 월 대비 +153,000 명	증가	실업률 상승압력, 참가율 하락에 가려짐
지방정부 교육 부문	-50,000 명	직전 12 개월 순변동 거의 없음	급감	여름철 계절조정 잔차 성격 강함
민간부문 고용	+30,000 명	6 월 +30,000 명	유지	헤드라인 감소 상쇄하나 폭넓은 개선 아님
시간당 평균임금(전년 대비)	+3.2%	-	-	임금 상승세 둔화

핵심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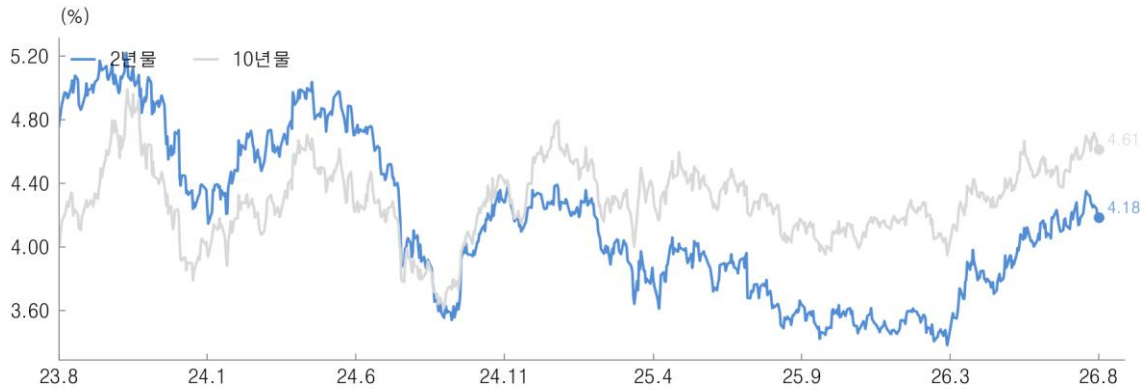
지표	값
실업률(%)	4.1
비농업고용 변화	changed little

미국 실업률 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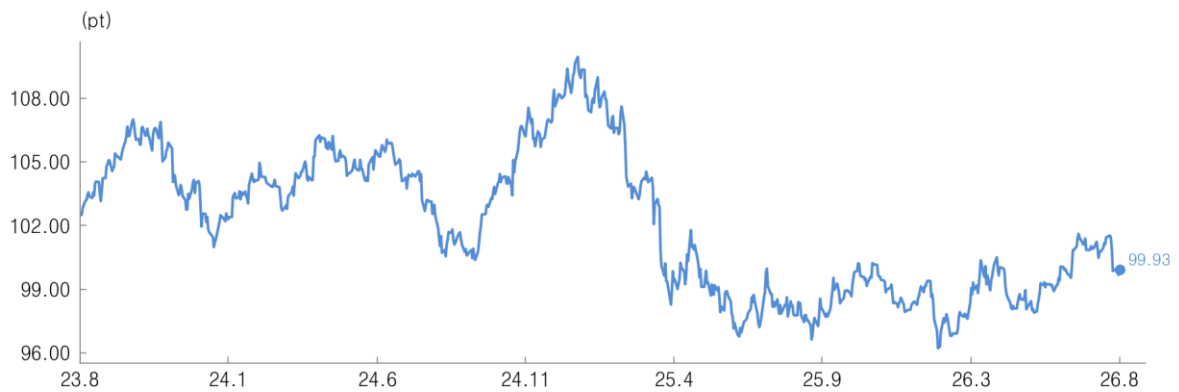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 국채금리 (2년·10년) 3년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달러지수(DXY) 3년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 조 1 항 5 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조재운)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 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자동 생성되었으며,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